

01 교회소식

이젠, 올레TV로 GCN 방송 시청

성탄절을 맞아 GCN 방송을 위성 안테나 설치 없이 올레TV로 전국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어 더 널리 생명의 양식을 전하게 됐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 참 목자를 허락하신 사랑에 감사.

03 기획특집

성탄절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04 간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된 김용훈 성도와 영적 믿음을 소유해 질병에서 해방된 몽골의 체렌치맥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665호 2014년 12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국 어디서나 위성 안테나 없이 GCN HD 방송 시청 12월 25일, KT 올레 TV 882번 런칭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GCN 방송이 올레TV 채널 882번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별도의 위성 안테나 없이도 HD(고화질)로 제작된 GCN 방송 프로그램을 전국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CN 방송 사장 이정호 장로는 "이사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개국 때부터 더 많은 사람이 안테나 없이 어디서나 편안하고 쉽게 성경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뜻에 맞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번에 올레TV 런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만큼 우리가 가진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KT 올레TV는 국내 550만 가구 약 1,700만 명의 시청자를 둔 국내 최대의 IPTV 사업자이다. GCN 방송은 이번 런칭을 통해 KT의 첨단 HD 송출 시스템과 넓은 방송망을 활용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시청자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오픈 되는 첫 방송이라는 점에서 전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올레TV 채널 882번을 통해 영적인 양식에 갈급한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GCN 방송의 생명력 넘치는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기존 GCN 방송과는 별도의 채널로서 HD 기술로 제작된 프로그램만 방송
특히 이번에 런칭하는 882번은 올레TV에 가입된 HD 전용 채널로 HD 기술로 제작된 프로그램만 엄선해 편성하므로 기존 GCN 방송과는 별도의 채널이다. 타 기독교방송과 차별화된 GCN 방송의 설교, 교양,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깨끗하고 선명한 HD 고화질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CN 방송 국장 이재환 장로는 "저희들의 목표는 최고의 말씀, 최고의 프로그램을 최고의 기술, 최고의 화질로 공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일찍부터 HD 제작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계, 제작하고 편집, 송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Full HD로 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 권능의 역사, 성도들의 신앙 간증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기독교 문화 등 삼위 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곳곳에서 이재록 목사의 설교로 삶이 변화되고 환자기도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시청자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을 전하는 채널

ktolleh tv 882번

GCN HD 12월 25일 성탄절 오픈



ktolleh tv
·국내 약 1,700만 명의 시청자를 둔 한국 IPTV 시장 최대 기업, KT 올레 TV
·안테나 없는 고화질은 확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교회 및 GCN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가입
·HD로 제작된 프로그램만 편성하여 기존 GCN 위성 방송과는 다른 채널!
※ 공역에 따라 일부 지역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가입 및 문의사항
02-823-2638 / 02-812-7500

변화와 생명 GCN HD

KT 올레TV에 가입하려면



01. 스마트폰, 교회 및 GCN 방송 홈페이지(www.gcntv.org)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02. 다니엘철야 전 본당 로비에 설치된 홍보데스크에서 IPTV 체험도 하고 편리한 휴대폰 가입도 가능합니다.

KT 인터넷 고객은 월 7,700원만 추가하면 시청 가능

65세 이상의 시청자는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7,700원의 저렴한 가격의 효(孝)상품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GCN 방송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16)

“하나님의 사랑”

때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애절한 눈빛과 마주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평생 그 충격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오르겠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오열이 터져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피곤함이나 주립,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수월하게 감당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의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에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셔야 했습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추위와 더위도, 채찍에 찢기고 손발에 못 박히는 고통도 육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신성을 작은 육체에 가두시고 육의 공간에 거하시면서 제약을 받는 답답함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도 날마다 크게 느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대하실 때의 애통과 배신할 제자에 대한 근심도 크셨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결코 모면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삼히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떠나 천군 천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애통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 조롱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해도 인생들이 너무 악해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해 더 애통해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

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갈 영혼들을 생각해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는 하늘의 해조차 빛을 잃어 캄캄하게 됐고 운명하시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감수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세토록 고통받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러한 사랑을 한 순간도 잊지 않도록 마음 안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2.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참된 목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0장 11절 후반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덤벼들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양을 지켜 내지요.

영적으로도 참 목자는 생명 다해 양을 돌봅니다.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이 많지만 목숨을 다해 양 떼를 지키며 영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목자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꾼이라면 굳이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돼 거룩하게 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죄를 버리라.”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고만 설교한다면 참으로 편할 것이며 성도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 떼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정결하라, 죄를 버리라.”는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생명된 말씀으로 성도를 변화시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프면 세상을 의지해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사꾼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

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의 기사와 표적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한 가지만으로 참된 목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참된 목자란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진리를 행해 본을 보여 주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듯이 양 떼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목자는 반드시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진리를 행할 능력을 얻도록 많은 기도와 금식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뤄 하나님의 참 뜻을 밝히 가르쳤고, 천국 소망을 더해 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영의 세계를 열었지요.

때마다 더 큰 권능을 행해 보여 주며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었고 변화될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믿음의 반석과 영으로, 온 영으로, 온전한 분량에 달할 때까지 잠시의 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향을 올리기에 많은 사람이 믿음의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왔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지요.

죄악이 관영해 구원받기 어려운 마지막 때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감사의 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오직 위엿것만 바라보며 거룩하고 순결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담대하게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무상을 말하지만, 믿음의 행군을 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응답과 축복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하루하루 감사의 조건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파하며 큰 권능으로 질병과 갖가지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온 인류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 죄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보았다면 어떤 마음 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이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의 참된 의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이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본다.

하나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기쁨의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죄의 삯은 사랑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놓인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며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다. 만약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힘

을 얻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면 도움을 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은혜를 갚으려 할 것이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사랑의 지옥에서 건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까지 얻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정녕 안다면 성탄절 하

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녕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마음 중심에서 깊이 느껴야 한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구원을 안겨줬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

둘 인생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축복의 날

요한일서 4장 9~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아무리 큰 부와 권세를 가졌다 해도 그것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영계의 법에 따라 구세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줘야만 한다.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과 일체인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 이처럼 구세주가 되려면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 주셨다. 로마서 5장 7-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죄인 된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이다. 과연 오늘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가까이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더욱이 죄인을 위해 내어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 사단의 종으로 원수 된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낌으로 중심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셋 천국에서 세세토록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려는 섭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 온 인류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천국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더욱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

으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며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와 세세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고 6천 년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모든 아픔과 슬픔을 참아오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자녀들로 나와야 할

것이다. 겨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세세토록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이 되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기 바란다.

12
Merry Christmas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4.12.21-12.27

이재목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아버지의 사랑 (성탄절 말씀)
- 1차 영혼육 6-8
- 2차 영혼육 1-2
- 사랑장 9-13
- 천국 11-15
- 십계명 9-10
- 요한계시록 강해 48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7-11
- 성령의 9가지 열매 1-3

GCN TV설교

- 목자의 권능 안에 (이수진 목사)
- 게으른 자 2 (이미영 목사)
- 이 사랑 잊지 말기를 1 (이미경 목사)
- 영의 눈, 육의 눈 (이화선 목사)
- 생명수 17 / 믿음의 분량 1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0 / 중성된 사자 (정구영 목사)
- 인자의 삶과 피 (이재정 교육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옛날 옛적에 11
- 창조와 과학 2
- 모두 드려요 20
- 내 마음의 찬양 3
- 즐거운 소리 3
- 만민 지킴이 7
- 즐거운 요리 22
- 뷰티풀 라이프 1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릉 21
- English 1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5
- 플로리스트 13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2
- 뉴욕 연합대성회 1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1-2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자상하고 섬세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이 넘칩니다”

김용훈 성도 (43세, 2대대 15교구)



작년 7월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닌 아내 김은숙 권찰이 두 달도 안 돼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받자 저는 감사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 올해 9월 14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요.

지난 7월부터 온전한 주일성수를 다짐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바로 옆에서 누군가 말해주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밝히 들렸는데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영혼육』 등 당회장님 저서도 읽기 시작했는데 신속하게 제안의 비전리가 허물어지며 믿음의 기초가 정립돼 갔지요. 특히 『십자가의 도』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왜 아무도 내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고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가?’ 하고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라고 질문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해답을 듣지 못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게는 ‘공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인상이 심겨졌지요.

그런데 당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희생적 사랑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강권하시니 사업터가 주님의 것이며, 저는 단지 소작하는 자일뿐이라는 고백과 함께 세상을 끊고 다시는 범죄치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9월 14일, 인터넷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한 경험이 없던 터라 생각나는 여러 죄를 고백했지요. 그러면서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순간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평생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으며,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며 또 간구했지요. 재물도, 권세도, 세상 욕망도 바라지 않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던 중 당회장님께서 단에 서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크게 기뻐하시며 “제가 선물 하나 줄까요?” 하셨지요. 선물은 사흘 뒤에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던 중, 열다섯 살 때 저의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일기장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소상히 떠오르자 두려움 속에 한 시간 가량 “살려주세요.”만 연발하고 앞드려 빌었습니다. 이윽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정한 목소리로 기도드릴 수 있게 됐지요. 이것이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주 후 사업터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까지 모조리 막히고 불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얼마 전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즉시 제 모든 방식을 버리고 죄와 허물을 찾고 간구하자 해결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한 시간에 하나씩 차례차례 문제가 해결돼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려고 영계의 법칙을 생생한 체험학습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었지요.

제가 하는 일은 IT 컨설팅 서비스인데, 어느 날 서비스와 제품의 매입 가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르고 달래며 인간의 죄를 동원했겠지만 이제는 남을 속이는 것 하나도 마음이 천근처럼 무겁게 여겨지니 저도 모르게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거래처로부터 매입가에서 60% 이상 줄어든 견적서가 오고, 다음 날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20% 이상 줄어든 견적서가 온 것입니다. 단지 죄를 멀리 하고픈 제 마음을 가상히 여겨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고 섬세하신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이어지니 법사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좋은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체렌치맥 자매 (21세, 몽골만민교회)



어릴 적부터 병치레를 많이 한 저는 성장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참된 신은 어디에 있을까?’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2년 10월, 몽골만민교회(담임 발저릭 푸레브 선교사)로 인도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 10년 동안 신장염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깨 통증과 세제 알레르기로 인해 빨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제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2013년과 2014년 4월에

열린 ‘권능의 손수건 집회’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한 번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더욱 건강한 몸이 됐지요.

3개월 동안 생리가 나오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 난소 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올리며 손수건 집회 때 치료받고자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제 온몸은 뜨거워졌고,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치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안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영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선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단지성선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선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선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선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